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예수님의 재림—전능하신 하나님이 국도(國度)시대에 발표하신 말씀(발췌문)

네가 예수의 영체를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하늘땅을 새로 바꾼 때이다

너는 예수를 보고 싶은가? 너는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가? 너는 예수가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영접하려 하는가? 너는 예비되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영접하려 하는가? 너는 예수를 따르는 형제자매들이 모두 하나의 좋은 방식으로 예수의 재림을 영접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너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재림할 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지? 그의 입으로 한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지? 그의 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성경을 본 사람은 모두 예수가 재림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예수의 재림을 전념하여 기다리고 있다. ○ 너희들은 모두 그 순간이 오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성실한 마음은 자랑할 만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참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흠모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모두가 아주 큰 잘못을 범하였음을 발견하였는가, 예수의 재림은 어떠한 방식이겠는가? 너희들은 흰 구름을 타고 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었다. 흰 구름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강림해야겠는가? 만약 예수가 먼저 너희들 가운데 강림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나는 너희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적성(赤誠)이 있고 매우 충심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너희들은 그의 성품을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은 그에 대하여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그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모를 리가 있었습니까? 그분의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즐겨 읽는 오미저도 어떤 색안경이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사람을 깔보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고집하지 말 것을 권한다. 우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러한 문제들을 고통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첫째, 나는 무엇을 실제(實際)라 하고 무엇이 이론인지를 아는가? 둘째, 나는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가? 셋째, 나는 무엇이 상상이고 무엇이 실정인지를 아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사실은 예수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어느 한 마디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어느 누구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모두 성경의 기록 또는 타인의 전설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고, 더욱이 예수와 함께 생활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예수와 잠시 동안 지낸 적도 없는데, 이러한 이해는 모두 이론이 아닌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혹시 어떤 사람은 예수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고, 혹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살던 곳을 직접 참관한 적이 있으며, 혹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입었던 옷을 만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너의 이해는 여전히 이론이고 실체가 아니다. 실례 예수가 먹었던 음식을 직접 맛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육신과 함께 지낸 적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너의 이해는 영원히 실체가 없는 텅 빈 이론이다. ○ 혹시 너는 내가 한 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가장 숭배하는 작가의 많은 작품을 보았어도, 그와 함께 지내기 전에는 그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가? 내가 그의 성격을 알겠는가? 내가 그의 생활 방식을 알겠는가? 내가 그의 회로예락을 알겠는가? 너는 내가 숭배하는 사람마저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야 더 말할 것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너의 이해는 상상이 가득했고 관념이 가득했으며, 진리가 아니고 실정(實情)이 아니며,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육체가 가득했다. 이러한 이해로 어찌 예수의 재림을 영접할 자격이 있었는가? 예수는 환상이 가득찬, 육체적 관념이 가득찬 사람을 접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의 신자가 될 자격이 있었는가?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적한 근원을 알고 싶은가?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실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환상이 가득했고,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으면서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의 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말해 보아라, 그들이 이렇게 우매하고 완고하며 이렇게 무지한데,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것은 그들이 성경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한 까닭이고, 그들이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인식하지 못한 까닭이며, 더욱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연고이다. 바로 그들이 메시아를 본 적도 없고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란 이름을 헛되이 지키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실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 이 바리새인들의 실질은 완고하고 오만하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원칙은 “당신이 가르친 도가 얼마나 높든, 당신의 권세가 얼마나 크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황당한 것이 아닌가? 내가 또 너희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예수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당시의 바리새인의 잘못을 아주 쉽게 재범하지 않았는가? 너는 무엇이 진리의 도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가? 너는 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로 보증을 할 수 있는가? 너는 성경의 역사를 따를 수 있는가? 만약 내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런지를 모른다면, 나는 내가 이미 사망의 변두리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 메시아를 알지 못한 사람은 모두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훼방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모두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모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렵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너희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고, 성경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파기하고, 예수의 입으로 발표된 언어를 타기(唾棄)하는 것이다. ○ 너희들이 이처럼 혼미한데, 예수로부터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너희들이 이처럼 잘못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온 사역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송이송이 흰 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를 줄곧 기다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의 족속이다. ○ 너희들은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만 받으려 하고, 천당의 복락경지(福樂境地)만 누리려 하면서 여태껏 예수의 입으로 한 언어를 청종하지 않았고, 여태껏 예수가 육신으로 돌아올 때 발표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너희들은 무엇으로써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온 사실을 바꾸려는가? 너희들이 누차 변죄하고도 말로 죄를 자백하는 성실한 마음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흰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온 예수께 드릴 제물로 하겠는가? 너희들이 자기를 높이 들고 여러 해 동안 사역한 자본인가? 너희들은 무엇으로써 다시 온 예수로 하여금 너희들을 신임하게 하겠는가? 어떠한 진리에도 순복하지 않는 너희들의 그 오만한 본성인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며,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어떻게 성경의 역사에 진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며, 너희들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와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모르며, 하나님의 입으로 발표된 네 마음에 맞지 않는 어느 한 마디 진리에 정죄할 줄만 안다. ○ 너의 겸손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순복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충심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찾고 구하는 너의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의 종류이며,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가 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의 자손이고 틀림없이 천사장의 후예이고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될 종류이다. ○ 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른다는 소위 각 성도에게 말한다.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너희들의 육안으로 직접 볼 때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 그때에 혹시 너의 심정은 매우 격동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알고나 있는가, 내가 예수가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볼 때는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 징벌 받을 때이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끝났음을 선고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賞善罰惡)할 때라는 것을. ○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진리가 발표될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 진리를 받아들이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오게 되고 조물주의 품속에 안기게 된다. 오직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라는 하나의 신념만 고집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서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생명의 참 도를 내놓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다시 올 때에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 그들은 너무 완고하고 너무 자신 만만하고 너무 오만하다.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어찌 예수의 상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서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정죄받는 기호이다. ○ 너희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성경을 모독하고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오만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의 인도에 순복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래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고, 합부로 단정하지 말고, 더욱이 제멋대로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권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구비해야 할 것은 겸손하고 온화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 진리를 듣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매 무지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듣고서도 마음대로 단정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만한 파우들이다. ○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모두 이지(理智)가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혹시 내가 진리의 도를 듣고 생명의 언어를 본 후에, 이런 말씀이 단지 만분의 일이라도 너의 생각에 부합되고 성경에 부합된다고 여긴다면, 너는 이 만분의 일의 언어 가운데서 계속 찾고 구하여라. 나는 또 너에게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고, 너무 자신하지 말고 너무 자고(自高)하지 말라고 권한다. ○ 너의 조금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장차 더 큰 빛을 얻게 될 것인데, 내가 자세히 고찰하고 반복적으로 상고하면, 너는 이 마디마디의 말씀이 도대체 진리인가 아닌가, 생명인가 아닌가, 생명을 알게 될 것이다. ○ 혹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몇 마디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정죄하여, “이것은 단지 성경의 깨우침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지하다! 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는 그래도 다시 시작하여라! 너희들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발표된 언어를 정죄하지 말고, 미혹 받을까 봐 성경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다면 너무 애석한 것이 아닌가? 만일 내가 여러 번 고찰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표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너는 바로 최종에 징벌 받을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였는데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아라! 경솔하지 말고 담담히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일을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기지 말라. 마땅히 자기의 귀속(歸宿)을 위하여, 자기의 전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고려해야 하고, 자기를 희롱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너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서 발췌

“예수는 여호와와 역사 이후에 말씀이 육신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 그의 사역은 여호와와 역사한 기초에서 한 것이지 독립체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마친 후에 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은 줄곧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곧 새로운 시대로 대체하게 되고, 낡은 사역이 끝나면 곧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 이번 도성육신(道成肉身)은 예수의 역사를 이은 후의 하나님의 두 번째 도성육신이다. 물론, 이번에 말씀이 육신 된 것도 독립체라 아니라, 율법시대·은혜시대를 이은 후의 제3단계 역사이다. ○ 하나님이 한 단계의 새로운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방식, 하나님의 역사 지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상응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새 시대에서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전 인류를 인솔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은혜시대를 가져오고 율법시대를 끝마쳤다. 말세에 하나님은 또 말씀이 육신 되었는데, 이번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는 은혜시대를 끝마치고 국도시대를 가져왔다. 무릇 두 번째 도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국도시대로 이끌려 들어가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솔을 받을 수 있다. ○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람을 받은 후,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여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들어갔다. ○ 무릇 그의 권세 아래에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며, 진실로 빛 속에서 살게 되고 진리·길·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서 발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발췌문

“예수는 여호와와 역사 이후에 말씀이 육신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 그의 사역은 여호와와 역사한 기초에서 한 것이지 독립체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율법시대를 끝마친 후에 한 새 시대의 사역이다. ○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끝난 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다음 시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경영은 줄곧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낡은 시대가 지나가면 곧 새로운 시대로 대체하게 되고, 낡은 사역이 끝나면 곧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 이번 도성육신(道成肉身)은 예수의 역사를 이은 후의 하나님의 두 번째 도성육신이다. 물론, 이번에 말씀이 육신 된 것도 독립체라 아니라, 율법시대·은혜시대를 이은 후의 제3단계 역사이다. ○ 하나님이 한 단계의 새로운 사역을 전개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방식, 하나님의 역사 지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상응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새 시대에서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전 인류를 인솔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예수는 인간 세상에 와서

은혜시대를 가져오고 율법시대를 끝마쳤다. 말세에 하나님은 또 말씀이 육신 되었는데, 이번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는 은혜시대를 끝마치고 국도시대를 가져왔다. 무릇 두 번째 도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국도시대로 이끌려 들어가고 또한 직접 하나님의 인솔을 받을 수 있다. ○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많은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지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였고 사람의 속죄제로만 되었을 뿐, 사람의 패괴 성정을 다 벗겨버리지는 않았다. ○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패괴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 그러므로 사람의 죄가 사람을 받은 후, 하나님은 또 육신으로 돌아와 사람을 이끌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여 형벌 심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 들어갔다. ○ 무릇 그의 권세 아래에 순복하는 사람은 더 높은 진리를 누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며, 진실로 빛 속에서 살게 되고 진리·길·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서 발췌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분들에게 값없이 드립니다

- 국도시대 하나님 말씀
- 국도시대 새노래
- 말세의 방주
- 마지막 티켓
- 국도복음 간증문답

문의 전화

010-4998-2691
010-4993-8291
010-4968-2791
070-7516-7062

http://kr.kingdomsalvation.org
http://www.godfootsteps.org/en
footsteps2013@gmail.com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